樓)址로 傳하는 바로 南側에서 唐의 兵具가 出土된은 懷古의 情을 禁할 수 없다。

麗川 興國寺의 調査

申 榮 勳

一九六一年 金庠基 金斗鍾 兩博士隨行 全南北古蹟 巡禮時 麗川郡 三日面 靈鷲山下의 興國寺를 심방하였다。 그 이듬해 겨울 同人 孟仁在、鄭永鎬、文明洙 諸氏와 尋訪하였었다。 이때 여러가지 敎示를 받은 바 있으므로 간단히 그 대요를 소개하여 두고자 한다。

亂積쌓기 基壇 그 前面으로 層階가 施設되었다。 基壇위에 梁間三間(四八・九三尺) 道里間三間(三六・五四尺)의 法堂을 造營하였는데 平面은 四面에 邊柱를 配置하고 中央에 二本의 高柱를 두는 平凡한 構成이다。 建物은 巍然한 모습을 갖인 당당한 것으로 柱高가 一一尺內外나 되고 昌枋(一・二五×一・〇四尺)과 平枋(一・六二×一・〇尺)도 厚材를 여유있게 사용하였다。

正側面 各 三間은 모두 等大로 割當된 것으로 中央間과 夾間과의 變化는 없었다。

기둥(平柱・直徑 二・三七尺平均)중 正面右側隅柱를 비롯한 三本이 顯著한 엔타시ㅡ스를 갖고 있어 注目되었다。 엔타시ㅡ스의 手法은 三分二部位(위로부터)가 가장 膨大하여지는 麗末鮮初的인 樣態를 갖인 것이다。

前面三間에는 각각 소슬비살무늬의 四分閤을 달고 左右 側面에는 出入口를 내었다。 마루는 板床이나 몸씨 높은 高床形이어서 南鮮的 特色을 具備하고 있는듯 하였다。

栱包는 外三內四出目의 多包系인 바 그 짜임은 堅實하나 호화를 다한 수법을 구사하였다。

架構는 多包系建物의 通式을 따랐을 뿐이므로 特記할만한 것이 없고 처마의 處理도 平凡한 樣式이다。 지붕은 판자기와 지붕이며 별다른 장식은 없다。

天井도 우물천정의 일반적인 것이고 圓樸 또한 凡俗함을 면하지 못하였다(錦圓靑)。

興國寺境內에는 大雄殿以外 여러 法堂이 있으나 모두 李朝末期의 建物들이고 大雄殿側의 無說殿만은 壬辰前建物로 보이나 詳細히 調査하지 못하였다。

大雄殿은 當時의 實態把握後 寶物三九六號로 指定된 바 있다。 建築年代에 대하여는 異論도 있었으나 事蹟記에 記錄된 仁祖二年(一六二四)重建說을 우선 重視하기로 하였다。 비록 年代는 뒤진 것이나 大雄殿의 手法은 다른 寺刹 鄕工들에 의하여 지어진 法堂과는 그 格이 다르고 樣式도 古格을 踏襲하고 있으므로 愛重되어야할 資料로 判定되었던 것이다。

前記 金庠基博士에 依하여 調査된 餘他 資料는 다음과 같았다。

興國寺入口虹橋一基(仁祖十七年)

興國寺重修事蹟碑(肅宗二十九年)

大雄殿銅鍾(康熙四年乙巳三月全羅道順天地桐禮山大興寺鑄成大鍾重七百五十斤)

佛畵(乾隆六年辛酉四月日靈鷲山興國寺大法堂天龍幀・帝釋幀・道光七年銘佛幀・大雄殿後佛壁白衣觀音半跏像)

鐙子(道光十二年壬辰八月日改鑄興國寺鐙子)

靑銅製器(康熙十六年丁巳三月銘大形器・銘文은 後刻으로 點線으로 전을 따라 돌아가며 새겼다。 他寺刹에서 移入된 作品이다)

姜邯贊落星坐石塔

金 禧 庚

契丹大軍을 殲滅한 高麗名將 姜邯贊將軍의 出產地인 始興郡 冠岳山에